

# 출입통제 및 기초방역 50%에도 못미치고, 시세에 따라 크게 좌우

□ 취재/이민균 기자

**국**가 경제가 고도로 발달되고 국민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됨에 따라 식문화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생존을 위해 먹던 시대는 지나갔다.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것을 섭취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문화를 거쳐 이제는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육계산업 또한 계육의 안전성 문제와 결부되어 최종산물인 닭고기의 청결도와 위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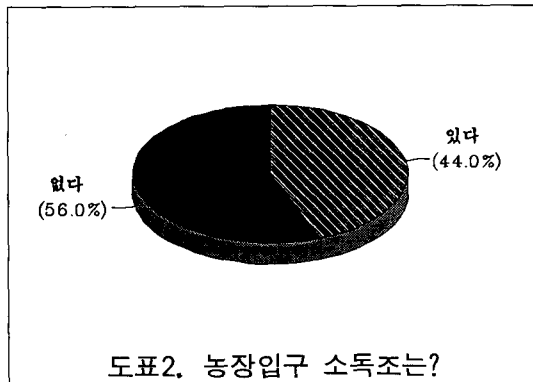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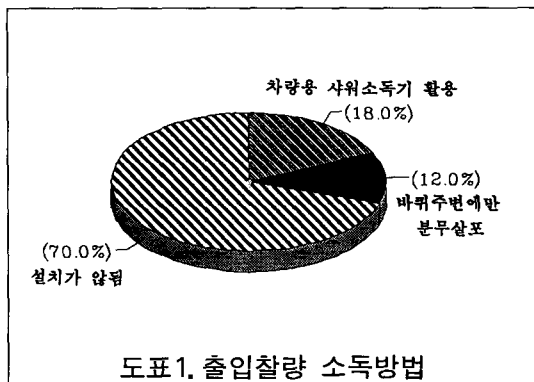
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해결키 위해서는 병아리의 육성에서부터 출하, 도계, 포장, 유통, 판매에 걸친 전 과정에 위생개념이 도입되어 나가야 할 때이다.

만약 농가에서 각종 약물과 유해물질에 오염된 닭을 출하한다면 제품화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아무리 위생적으로 처리를 한다 할 지라도 그 제품은 결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방차원이 아닌 치료위주의 방역체계**

국내 육계농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많은 수의 농가가 질병에 대한 차단은 사전예방에 의한 방역관리 보다는 질병피해를 입은 직후 치료를 시작하여 많은 약물을 투여하는 등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식의 방역을 하고 있다. 즉, 방역개념이 예방차원이 아닌 사후 치료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한번 피해를 입으면 다음 계군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의 유해환경과 차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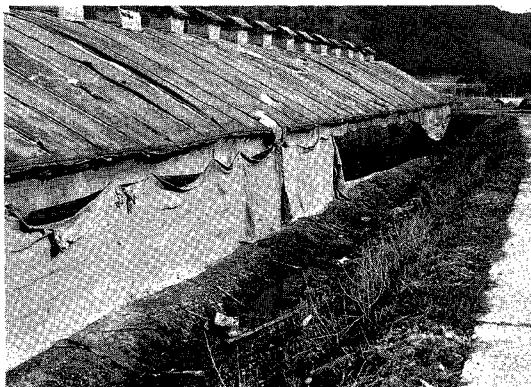
다시 질병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육계산업은 계사시설의 낙후와 외부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노력 저하가 맞물려 총체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안전성이 결여된 계육을 생산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계사시설은 최근 새롭게 건축되는 계사를 제외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계사형태가 보온덮개를 이용한 간이계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계군을 위생적으로 잘 키운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외부환경이 열악할 경우(혹서기와 혹한기) 계사 내부환경을 조절하여 적정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기후의 특성상 연중 기온

차가 50℃이상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열악한 계사 여건상 단열, 환기, 광선관리, 유해성 병원체의 차단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환경으로 기인되는 생산성 저하 및 소모성 질병의 발생은 육계산업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익성 증대와 거리가 먼 계사환경 구조개선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다.



△각종 오물에 둘러싸인 계사는 항상 질병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 ○만인에게 개방된 농장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외부와의 차단과 소독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격리와 소독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방역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소독은 불완전한 격리수단을 보완하여 완전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역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며 대다수의 농가에서 정확한 사용방법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체는 외부인, 야생동물, 기계기구의 이동, 각종 차량, 공기, 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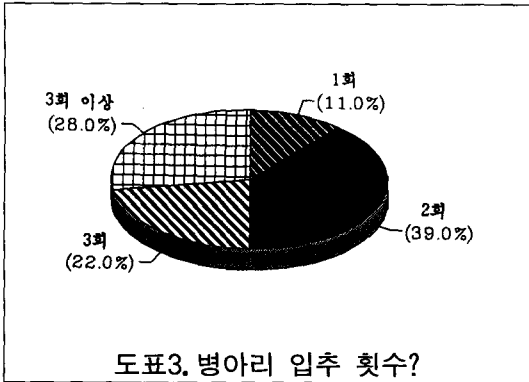


도표3. 병아리 입추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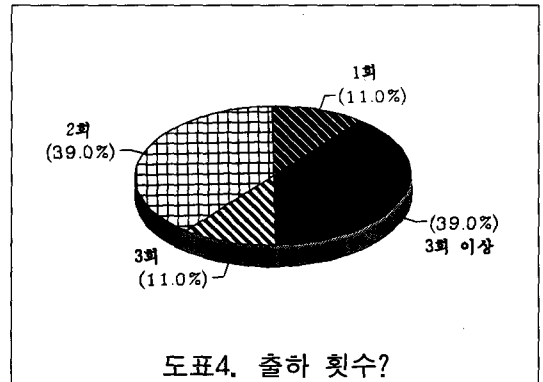


도표4. 출하 횟수?

료, 곤충 등 거의 모든 것을 통해 전파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상당수 농가가 농장을 구분 지어 주는 울타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막상 울타리는 쳐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 외부인이 농장 내부에 쉽게 출입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차량은 농장을 출입함에 있어 거의 무시통과이며, 사료회사 및 약품회사 관계자는

농장주 및 관리자의 큰 저항 없이 계사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유해환경에 거의 노출되다시피 한 여건에서 생체저항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쉽사리 생산성이 저하되고 질병이 발병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양가들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라 사료된다.

**○구조적 모순으로 올인-올아웃 정착에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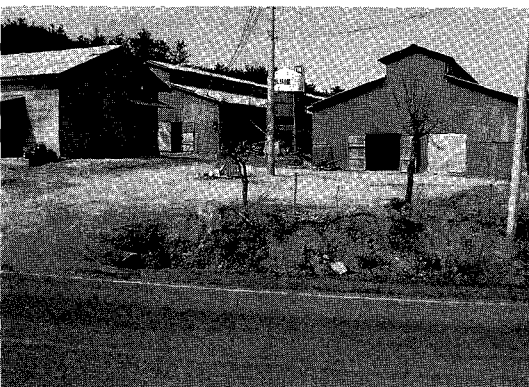
방역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계의 입추와 출하에 있어 질병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올인-올아웃(All in - All out)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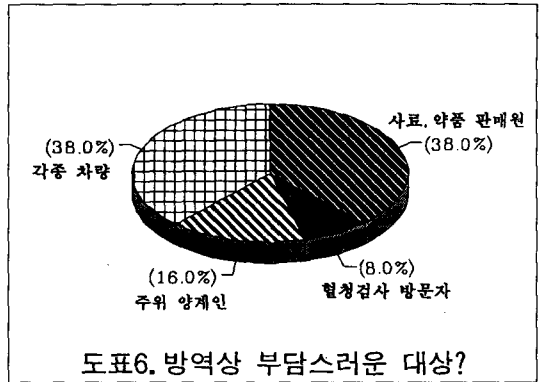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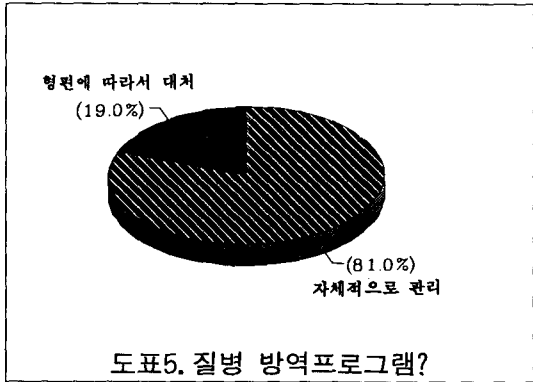
일시에 한 농장의 계군을 비우는 것이 오염방지에 효과적이나 병아리 구입의 문제와 출하의 시기선택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 사육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육계 시장의 판도가 800원에서 2,000원까지 들락거리는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생산성 증대보다는 시기의 적중이 양축농가의 수입을 좌지우지하므로 양축가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은 소위 말하는 때를 맞추는 것에 이어 2 순위이다.

여러 일령의 계군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유해 병원체에 노출을 의미하며 질병 피해를



△많은 농가들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외부인은 물론 차량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입구에 소독조 하나 없는 형편이다.



입기가 쉽다. 일부계사에서서는 병아리가 육성중에 있고 다른 계군의 입추를 위해 소독과정 없이 차량이 농장내를 출입하고, 또한 늦게 입추된 계군이 육성중에 먼저 입추된 계군이 출하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추와 출하가 수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차량의 소독과정을 생략하고 농장내에 들어오는 것은 실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신접종의 필요성

국내 육계농장은 지역적으로 발생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염성 질병인 뉴캐슬(ND), 전염성 기관지염(IB), 전염성 낭병(감보로 IBD) 등의 바이러스성 질병과 직접 혹은 이차적으로 감염되는 대장균증

등과 같은 세균성 질병이 거의 상재 되다시피 하고 있어 이러한 질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침투능력이 강력한 악성 전염병이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전염병, 상재성이 높은 전염병은 체내에서 병원체를 막아낼 수 있는 면역 항체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백신접종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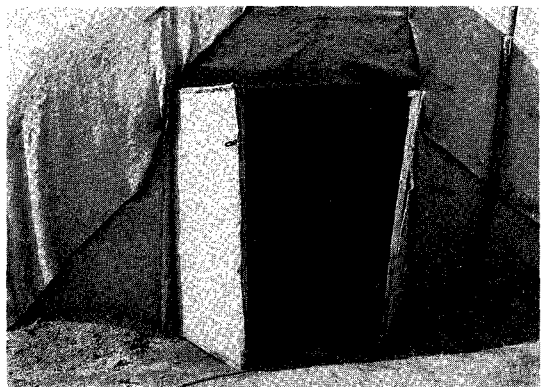
백신접종은 생체의 면역기능, 전염병의 야외 감염 빈도, 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횟수나 접종량이 많다고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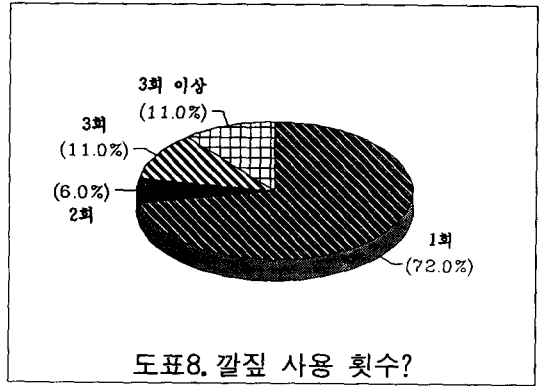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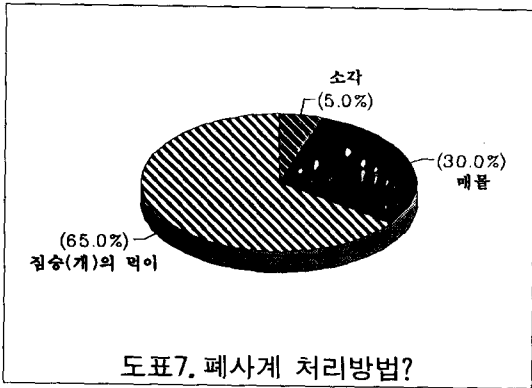
과 농장실정에 적합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활용이 선결되어야 한다.

백신은 수송에서 저장에 이르기까지 백신 역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히 취급해야 하며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백신접종 후에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보충 등 사양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많은 사양가들이 백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원가상승



△소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상 계사입구에는 거의 소독조 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기초방역이 되지 않고 있다.



등에 의하여 백신을 기피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외부와의 교류가 많고 확실한 통제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백신을 하지 않고 닭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주위의 농가에서 백신을 하지 않고도 잘 키우는 것을 보았을 때 백신한 농가는 헛 돈 썼다는 생각을 하나 이것은 단지 백신을 하지 않은 농가에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요행수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은 필연적이다.

**0시세에 따른 차등 방역**

육계농가에서는 닭값에 따라 영양제나 예방약 등의 사용에 큰 변이를 보인다는 것이 일선에서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즉, 농가에서는 닭값이 고가를 유지하면 한마리라도 더 살리고 조금이라도 더 잘 키우기 위해 기본으로 권장하는 약제 이외에도 항스트레스제 등을 구입하여 투여를 하지만 시세가 저가를 유지할 때는 심지어 기본 약제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지속적인 방역 개념을 가지고 계사 주변 및 내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조차도 시세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질병차단이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국내 양계산업은 구조적으로 기업화, 전업화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질병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치료 및 퇴치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질병이 발병하기 전 차단방역, 소독, 백신접종, 패적한 사양관리를 통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질병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일선농가에서 최근 병아리가 고가이고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부 부화장에서 불량추를 끼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계군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어 이러한 부도덕한 상혼은 하루빨리 척결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문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전국의 육계농가 20여군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전체 육계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표본은 적다 할지라도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양계**